

밀레니엄 시대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경인년(庚寅年) 새해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시무식이 있었던 1월 4일은 기습한파와 폭설이 출근길의 시민들을 당혹케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연초에 내린 서설(瑞雪)이 아닌가 합니다.

시인 고은 선생은 '내달리기만 한 길 쉬어가라고 눈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앞 다투는 삶 좀 누우치라고 눈 쌓여 여기 저기 삶의 길 막히신다/지나온 백년 지나온 60년 30년 10년 뒤 돌아다보라고/맞이하는 내일 백번 펼쳐보라고 눈 오신다/2010년 새해 아침 축복의 눈 이토록 쌓이신다 (고은, 새해 눈 오신다)'고 했습니다.

2010년은 뉴밀레니엄 시대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시발점입니다.

지난해가 방송광고 사전심의와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광고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서막이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방송광고에서는 미디어랩 경쟁체제 도입, 간접광고 허용, 종합편성 PP와 보도전문채널 등장이 예상되는 한편, 인쇄광고 역시 미디어시장의 변화에 따라 방송사업 진출과 뉴미디어, 콘텐츠사업 확대 등이 예상됩니다.

새로운 세상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필요한 경쟁력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목표와 이를 실현시킬 진취적인 기상입니다. 한국광고주협회의 올해 목표는 미디어시장 변화에 따른 회원서비스 강화,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협회 위상 강화, 그리고 회원 중심의 조직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며 새로운 10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첫째, 회원들을 대신하여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협회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들이 원하는 바를 먼저 파악하고 미디어 변화에 선대응하여 회원의 권익 보호와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협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광고환경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광고, 마케팅, 홍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회원들의 요구에 보다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와 관련된 모든 일을 포괄하는 광고의 중심센터가 되도록 협회의 위상 제고에 힘을 것입니다.

아울러 회원 중심의 조직 운영과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광고, 마케팅, 홍보 관련 교육 세미나 사업을 확대하여 회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한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5%대로 내놓았습니다. 여러 경제전문가들 역시 경제 회복 속도는 세계경제추이, 환율, 금리, 유가변동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겠으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역시 회복기에 접어들어 경제 정상화를 위한 출구 전략에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취약 요인을 해소하고 위기대응책이 낡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에 여러 정책들이 집중될 것입니다.

글로벌경제와 국내 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올해는 광고경기 역시 호전될 것이 기대됩니다. 특히 2월의 동계올림픽과 6월의 남아공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광고시장 활성화에 호재로 작용될 것입니다.

60년 만에 찾아온 백호(白虎)의 해에 용맹한 기상과 진취적인 도전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루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대한 희망과 힘찬 기운이 광고시장 활성화와 광고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0.1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이순동